

치위생(학)과 학생의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나 · 허윤민 · 김형주 · 안용순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과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i-Na Kim · Yun-Min Heo · Hyoung-Joo Kim · Yong-Soon Ah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Corresponding Author: Yong-Soon Ah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53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13 Korea; Tel : +82-31-740-7228, Fax : +82-31-740-7352, E-mail : ahnys56@eulji.ac.kr

Received: 22 September 2014; Revised: 25 January 2015; Accepted: 30 Januar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14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who filled out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s from January 20 to February 15, 2014. Except incomplete answers, 187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for Scheffe post hoc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values. General characteristics consisted of gender, age, grade, school record, major choice motivation, and the influencing person to choose the major. The instrument for values was modified from Shin based on MILOV(Multi-Item Measures Of Values) and two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Instrument for values consisted of 7 questions of values for self-respect, 6 questions of relation oriented values, 5 questions of emotion oriented values, and 5 questions of values for others measured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769 in the study. The instrument for major satisfaction was modified from Na based on Program Evaluation Survey of Illinois University and two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Major satisfaction consisted of 7 questions of general satisfaction, 5 questions of consciousness satisfaction, 5 questions of curriculum satisfaction and 3 questions of relation satisfaction measured by Likert 5 scale and Cronbach's alpha was 0.887 in the study.

Results: Values of self-respect,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grad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general satisfaction, while values of self-respect,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gend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ciousness satisfaction. Values of relationship orientation, grade and school record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urriculum satisfaction. Grade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Conclusions: Values of self-respect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guidance for professional career and major satisfac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the values of self-respect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values

색인: 가치관, 전공만족도, 치위생(학)과 학생

서론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공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¹⁾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²⁾.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해 성적불량,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 소외감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안, 신경증 등의 각종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학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가 저하 되므로 개인적, 사회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³⁾. 또한 휴학, 편입, 재입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기며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의 손실을 일으키게 되므로⁴⁾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에 대한 흥미 및 관심⁵⁾, 자기 효능감^{7,8)}, 자아 존중감⁹⁾, 직업 존중감¹⁰⁾ 등의 요인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정¹⁰⁾과 한 등¹¹⁾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치관이 전공 교과목 내용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 등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¹⁰⁾의 미용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 가치관은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주된 가치관이며 전공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유형에 따라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공유형에 따른 주된 가치관의 확인 과정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학생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의복행동^{12,13)}, 생활양식^{14,15)}, 학업성취도¹⁶⁾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조리, 외식관련^{11,17)}, 경호학¹⁸⁾, 미용¹⁰⁾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된바 있다. 그러나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자아 탄력성¹⁹⁾, 자기 효능감¹⁹⁾, 정서적 인식²⁰⁾ 등의 요인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이외에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진로지도 및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 214명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 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187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표본 수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해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 정도(medium) 수준인 0.15, 독립변수(일반적 특성 3개, 가치관 4개) 7개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153명으로 결정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고려하여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학점,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총 6문항이다. 가치관의 문항은 Herche(1994)의 MILOV(Multi-Item Measures Of Values)와 이경옥, 정용선(1999)의 가치관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신²¹⁾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치위생학과 교수 2인에 의해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 가치관 7문항, 관계지향 가치관 6문항, 감성추구 가치관 5문항, 타인의식 가치관 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가치관 23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69$ 이었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 자아존중 가치관은 자아실현과 자아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은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감성추구 가치관은 이성보다는 감성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타인의식 가치관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신²¹⁾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공만족도의 문항은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나동진(1985)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한 하²²⁾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치위생학과 교수 2인에 의해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도구는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5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 20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7$ 이었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 일반만족은 전공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만족, 인식만족은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교과만족은 전공 교과목 내용에 대한 만족, 관계만족은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하²²⁾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으며 등분산 검정은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들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고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총 178명 중 성별은 ‘여자’가 97.3%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21세’가 78.6%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36.4%, ‘4학년’이 35.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학년’이 28.3% 순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3.5이상-4.0미만’이 4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Gender	
Female	182(97.3)
Male	5(2.7)
Age	
20~21	147(78.6)
22~23	35(18.7)
≥ 24	5(2.7)
Grade	
Sophomore	53(28.3)
Junior	68(36.4)
Senior	66(35.3)
School record	
≥ 4.0 ~ <4.5	24(12.8)
≥ 3.5 ~ <4.0	82(43.9)
≥ 3.0 ~ <3.5	53(28.3)
≥ 2.5 ~ <3.0	28(15.0)
Major choice motivation	
For employment	92(49.2)
For aptitude	12(6.4)
For school record	31(16.6)
Advice from others	23(12.3)
For professional career	29(15.5)
Who influenced on major choice	
Parents	62(33.2)
Teacher	22(11.8)
Friend	17(9.1)
Brother and relatives	11(5.9)
Personal opinion	75(40.1)
Total	187(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선택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본인의사’가 40.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정도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치관은 ‘관계지향’의 평균이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존중’ 3.28, ‘감성추구’ 3.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 2.80로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인식만족’이 3.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만족’ 3.25, ‘교과만족’ 3.10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만족’이 2.94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학점에 따라 4.0이상-4.5미만이 3.50로 가장 높았고, 3.0이상-3.5미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관계지향 가치관은 학년에 따라 4학년이 3.64로 높았고, 타인의식 가치관은 전공선택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형제 및 친척’이 3.13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추구 가치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만족은 학점에 따라 4.0이상-4.5미만이 3.53로 높게 나타났다. 3.0이상-3.5미만, 2.5이상-3.0미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 ‘적성고려’가 3.64로 ‘성적’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만족은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3.48로 높게, 학점은 4.0이상-4.5미만에서 3.69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과만족은 학년에 따라 2학년이 3.36로 가장 높게 3, 4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점에서 4.0이상-4.5미만이 3.40로 높게 2.5이상-3.0미만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관계만족은 학년에 따라 2학년이 3.34로 높게 나타났으며 3, 4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전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2학년’이 3.41로 높게, 학점에 따라 4.0이상-4.5미만이 3.49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5.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계지향 가치관은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감성추구, 타인의식 가치관

Table 2. Level of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ean	SD
Values	Self-respect	3.28	0.42
	Relationship orientation	3.53	0.47
	Sensibility pursuit	3.13	0.54
	Consciousness for others	2.80	0.58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25	0.58
	Consciousness satisfaction	3.46	0.66
	Curriculum satisfaction	3.10	0.55
	Relationship satisfaction	2.94	0.78
	Total	3.22	0.49

Table 3. Valu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respect		Relationship orientation		Sensibility pursuit		Consciousness for others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Female	3.27±0.42	0.059	3.53±0.46	0.329	3.14±0.53	0.061	2.80±0.59	0.993
Male	3.63±0.30		3.73±0.63		2.68±0.64		2.80±0.42	
Age								
20~21	3.25±0.42	0.121	3.51±0.48	0.360	3.15±0.53	0.079	2.79±0.57	0.818
22~23	3.41±0.44		3.63±0.44		3.10±0.56		2.84±0.62	
≥24	3.20±0.39		3.50±0.42		2.60±0.49		2.68±0.66	
Grade								
Sophomore	3.26±0.46	0.872	3.51±0.42 ^a	0.046	3.14±0.56	0.200	2.82±0.57	0.380
Junior	3.30±0.42		3.44±0.46 ^a		3.20±0.57		2.86±0.61	
Senior	3.27±0.40		3.64±0.49 ^a		3.04±0.48		2.72±0.56	
School record								
≥4.0~<4.5	3.50±0.52 ^b	0.014	3.56±0.46	0.529	3.11±0.57	0.383	2.97±0.70	0.262
≥3.5~<4.0	3.29±0.42 ^{ab}		3.57±0.44		3.20±0.52		2.83±0.56	
≥3.0~<3.5	3.16±0.36 ^a		3.52±0.45		3.03±0.59		2.69±0.47	
≥2.5~<3.0	3.27±0.38 ^{ab}		3.42±0.58		3.10±0.47		2.76±0.69	
Major choice motivation								
For employment	3.29±0.38	0.165	3.56±0.42	0.444	3.14±0.57	0.300	2.76±0.51	0.097
For aptitude	3.45±0.51		3.63±0.40		3.00±0.55		2.93±0.63	
For school record	3.23±0.35		3.51±0.52		3.15±0.57		2.77±0.48	
Advice from others	3.12±0.41		3.57±0.41		2.94±0.41		2.63±0.37	
For professional career	3.34±0.56		3.39±0.67		3.24±0.48		2.80±0.89	
Who influenced on major choice								
Parents	3.23±0.37	0.572	3.56±0.45	0.676	3.12±0.48	0.924	2.61±0.47 ^a	0.007
Teacher	3.28±0.38		3.51±0.63		3.05±0.41		2.97±0.64 ^a	
Friend	3.37±0.72		3.43±0.51		3.11±0.67		2.99±0.91 ^a	
Brother and relative	3.43±0.36		3.68±0.44		3.24±0.60		3.13±0.70 ^a	
Personal opinion	3.27±0.40		3.51±0.43		3.14±0.59		2.81±0.49 ^a	

*by t-test or one-way ANOVA

^{a,b}Post hoc test was conducted from Scheffe test

과 전공만족도의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5>.

6.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수인 성별, 학년, 학점은 모형1에 투입하고 자아존중, 관계지향, 감성추구, 타인의식 가치관은 모형2에 투입해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의 일반, 인식, 교과, 관계만족을 위계적회귀로 분석한 결과, 일반만족의 모형1은 학점이 유의한 변수로 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형2는 학년, 자아존중과

Table 4.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eral satisfaction		Consciousness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otal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	Mean±SD	p-value *
Gender										
Female	2.83±0.80	0.101	2.80±0.75	0.024	3.04±0.26	0.790	2.67±0.97	0.427	3.23±0.49	0.090
Male	3.26±0.57		3.48±0.65		3.11±0.56		2.95±0.78		2.85±0.59	
Age										
20~21	3.28±0.59	0.312	3.50±0.67	0.347	3.13±0.57	0.190	2.93±0.81	0.827	3.24±0.51	0.358
22~23	3.11±0.49		3.32±0.61		2.97±0.45		3.00±0.63		3.11±0.42	
≥24	3.23±0.87		3.36±0.75		3.32±0.46		2.80±0.87		3.22±0.59	
Grade										
Sophomore	3.41±0.55	0.050	3.49±0.61	0.902	3.36±0.59 ^b	<0.001	3.34±0.77 ^b	<0.001	3.41±0.50 ^b	0.004
Junior	3.18±0.52		3.44±0.65		3.06±0.48 ^a		2.88±0.74 ^a		3.17±0.42 ^a	
Senior	3.19±0.64		3.46±0.72		2.95±0.52 ^a		2.68±0.71 ^a		3.12±0.52 ^a	
School record										
≥4.0~<4.5	3.53±0.75 ^b	0.012	3.69±0.80 ^a	0.042	3.40±0.65 ^b	0.017	3.24±1.01	0.094	3.49±0.63 ^b	0.007
≥3.5~<4.0	3.30±0.51 ^{ab}		3.51±0.56 ^a		3.08±0.53 ^{ab}		2.97±0.76		3.25±0.44 ^{ab}	
≥3.0~<3.5	3.10±0.61 ^a		3.26±0.64 ^a		3.11±0.59 ^{ab}		2.76±0.65		3.09±0.50 ^a	
≥2.5~<3.0	3.13±0.47 ^a		3.47±0.78 ^a		2.93±0.33 ^a		2.94±0.79		3.14±0.42 ^a	
Major choice motivation										
For employment	3.22±0.57 ^{ab}	0.024	3.50±0.62	0.382	3.14±0.56	0.252	3.02±0.80	0.474	3.24±0.49	0.117
For aptitude	3.64±0.55 ^b		3.63±0.82		3.08±0.52		3.11±0.41		3.42±0.47	
For school record	3.06±0.49 ^a		3.28±0.59		2.90±0.50		2.77±0.67		3.04±0.43	
Advice from others	3.22±0.63 ^{ab}		3.36±0.61		3.14±0.62		2.86±0.82		3.18±0.52	
For professional career	3.40±0.60 ^{ab}		3.52±0.81		3.19±0.51		2.86±0.90		3.30±0.53	
Who influenced on major choice										
Parents	3.20±0.61	0.596	3.34±0.79	0.798	3.01±0.36	0.917	2.92±0.57	0.310	3.19±0.50	0.553
Teacher	3.31±0.64		3.36±0.72		3.19±0.73		3.20±0.82		3.12±0.46	
Friend	3.21±0.51		3.50±0.14		3.10±0.14		2.17±1.18		3.28±0.66	
Brother and relative	3.51±0.71		3.62±0.87		3.18±0.79		3.26±0.95		3.42±0.43	
Personal opinion	3.29±0.53		3.52±0.61		3.08±0.49		2.87±0.75		3.23±0.47	

* by t-test or one-way ANOVA

^{a,b}Post hoc test was conducted from Scheffe tes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Self-respect	Relationship orientation	Sensibility pursuit	Consciousness for others
General satisfaction	0.251**	0.218**	0.093	0.108
Consciousness satisfaction	0.262**	0.198**	0.072	0.086
Curriculum satisfaction	0.107	0.170*	0.063	0.021
Relationship satisfaction	0.096	0.056	-0.002	0.009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관계지향 가치관이 유의한 변수로 1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자아존중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였고 관계지향 가치관, 학년 순이었다. 인식만족의 모형1은 성별이 유의한 변수였으나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2는 성별, 자아존중과 관계지향 가치관이 유의한 변수로 1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아존중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였고 성별, 관계지향 가치관 순이었다. 교과만족의 모형1은 학년, 학점이 유의한 변수로 11.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형2는 학년, 학점, 관계지향 가치관이 유의한 변수로 15.2%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 관계만족의 모형1은 학년이 유의한 변수로 12.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형2도 역시 학년이 유의한 변수로 14.4%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6>.

Table 6. Influence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General satisfaction				Consciousness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odel 1	Model 2	β	p-value*	Model 1	Model 2	β	p-value*	Model 1	Model 2	β	p-value*	Model 1	Model 2	β	p-value*
Gender ¹⁾	-0.071	0.327	-0.142	0.053	-0.146	0.049	-0.229	0.002	0.043	0.545	0.015	0.834	-0.003	0.968	-0.043	0.557
Grade	-0.129	0.075	-0.157	0.025	0.005	0.942	-0.023	0.743	-0.288	0.000	-0.312	0.000	-0.325	0.000	-0.344	0.000
School record	-0.198	0.007	-0.130	0.071	-0.113	0.128	-0.039	0.590	-0.176	0.014	-0.147	0.042	-0.112	0.112	-0.086	0.237
Self-respect			0.226	0.011			0.297	0.001			0.057	0.520			0.134	0.135
Relationship orientation			0.203	0.009			0.167	0.033			0.182	0.020			0.077	0.322
Sensibility pursuit			-0.116	0.180			-0.141	0.106			-0.032	0.712			-0.101	0.245
Consciousness for others			0.037	0.672			0.010	0.915			-0.020	0.826			-0.038	0.666
F	4.595		4.946		2.522		4.338		7.926		4.581		8.479		4.303	
p-value*	0.004		<0.001		0.059		<0.001		<0.001		<0.001		<0.001		<0.001	
R ²	0.070		0.162		0.040		0.145		0.115		0.152		0.122		0.14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¹⁾Dummy coding: female=0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공만족을 높이는 방안모색과 진로진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치관의 경우 관계지향 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인의식 가치관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¹⁰⁾의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 전공과 미용전공의 대학생은 전공 특성상 졸업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점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인식만족이 가장 높았고 관계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정 등²³⁾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인식만족의 경우 치위생(학)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높은 취업률로 최근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의식변화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낮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 바 교수의 대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는 물론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학점에 따라 4.0이상-3.5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존감 추구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지향 가치관은 학년에 따라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이 2, 3학년 보다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타인의식 가치관은 전공선택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형제 및 친척'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형제나 친척에게 영향력을 받은 학생일수록 생활전반 있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만족은 학점에 따라 4.0이상-4.5미만이 높게 나타나 김 등²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공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의 경우 '적성고려'에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¹⁷⁾의 조리, 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동기는 전공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 등²⁵⁾과 김 등²⁴⁾의 연구에서는 전공을 선택한 동기로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62.4%로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이 전공선택시 적성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 졸업 후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식만족은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인식에 대해 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²⁶⁾의 경호학 관련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식만족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전공분야에 따라 성별 분포의 차이가 있고 치위생학 전공 특성상 남성 보다 여성이 많아 표본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비교 연구가 추후 진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점에 따라 4.0이상-4.5미만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 등²³⁾의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사회적 인식에 대해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만족은 학년에 따라 2학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²⁶⁾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조사되었고 최¹⁸⁾의 연구에서는 4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전공마다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고 학년마다 교과목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3학년 시기에 병원으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2학년 시기에 이론 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많아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 등²⁵⁾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의 관련성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의 인식만족과 교과만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교과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법 및 전공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점은 4.0이상-4.5미만에서 교과만족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교육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만족은 학년에 따라 2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²⁶⁾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2학년에서 관계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1, 2학년 시기에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진로지도 및 대학생할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일반만족, 인식만족에서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지향 가치관은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에서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 등¹¹⁾의 연구에서는 관계지향 가치관과 교과만족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정¹⁰⁾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 가치관과 인식만족이, 관계지향 가치관과 인식만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감성추구 가치관과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이, 타인의식 가치관은 인식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전공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학년이 일반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에 대해 일반적으로 흥미를 느끼며 만족을 보였다. 그리고 인식만족은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여학생의 경우 만족을 보였는데, 이는 한 등¹¹⁾과 정¹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전공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의 교과만족에는 관계지향 가치관과 학년, 학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고 학년과 학점이 낮을수록 전공 교과목 내용에 일반적으로 만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계만족은 자아존중, 관계지향, 감성추구, 타인의식 가치관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보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조리, 외식전공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19.3%¹¹⁾, 미용전공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15%¹⁰⁾와 유사한 14.4%에서 16.2%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전공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가치관 이외에 졸업 후 치과 임상에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기술을 수행함에 따라 임상기술 수행정도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감성추구, 타인의식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나 감성추구 가치관이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¹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전공유형에 따라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관이 다르며 그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 경기지역의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을 편의추출 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가치관은 심

리적인 요소가 작용됨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사용 보다는 심층적인 면접조사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치관의 문항을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전공만족도와 관련성을 제시한 것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은 물론 진로지도에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치관은 ‘관계지향’이 3.53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의식’이 2.80으로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인식만족’이 3.46로 가장 높았고 ‘관계만족’이 2.94로 가장 낮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학점에 따라, 관계지향 가치관은 학년에 따라, 타인의식 가치관은 전공선택시 영향을 끼친 사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만족은 학점,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 인식만족은 성별,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과만족은 학년, 학점에 따라, 관계만족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그리고 관계지향 가치관은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학년이 일반만족에,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성별이 인식만족에, 관계지향 가치관, 학년, 학점이 교과만족에, 학년이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로지도 및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모색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Assoc* 2000; 1(1): 7-20.
2. Jang SC. An analysis of typ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Korean J Counseling Psychology* 2004; 16(3): 533-51.
3. Jo SJ.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 centered educ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10; 13(3): 111-51.
4. Young SH. New direc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job preference tendency and guidance counseling for teenag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ob interest test[Master's thesis]. Incheon: Univ. of Incheon, 2004.
5. Kim SY.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tors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case of three universities in chonbuk region-[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07.
6. Yang MH, Park MJ, Kim HJ.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2010; 29(2): 137-56.
7. Lee SH. Influence of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by former high school upon major satisfac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achon, 2011.
8. Kim JA.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jong, 2014.
9. Sin MA.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 Assoc* 2013; 13(11): 1024-35.
10. Jeong HY.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Kyungseong, 2010.
11. Han YJ, Lee JH.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Korean J Culinary Res* 2013; 19(2): 76-92.
12. Chang HY. A research on the values and clothing behaviors of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Ewha Womans, 2000.
13. Park HW, Kim H, Lim SJ.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based on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Society of Clothing & Textiles* 2005; 29(1): 103-13.
14. Han SC, Kim YH. The survey of adolescent's valuability: a life view, a family view, a education view and a vocation view. *J Educ Res* 2003; 24(1): 55-79.
15. Kim YM, Lee CS.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value on their lifestyle. *Korean J Youth Studies* 2008; 15(5): 133-56.
16. Jung HS.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value orient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0.
17. Han YJ.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Kyungseong, 2014.
18. Choi SK. The relation on guard major college students' sense of values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e and satisfac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orea National sport, 2012.
19. Choi MS, Jang YH, Yun HK.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2): 155-62.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55>.
20. Yu JS, Choi SY.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10; 10(5): 307-14.
21. Shin SR.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value, clothing image and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 of Keimyung, 2008.
22.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0.
23. Jung GO, Choi GY, Bae JY. Original articl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61-8.
24. Kim SG, Koo YK, Jeong M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Cont Assoc* 2012; 12(8): 248-55.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248>
25. Jeong MK, Lee JY.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6): 1241-9.
26. Im SM.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n decision on the course to take of students in security related majors[Master's thesis]. Yongin: Univ. of Yongin, 2011.